

남부지방에서 들깨의 파종기가 생육 및 채엽수량에 미치는 영향

박희진¹⁾, 권병선²⁾, 현규환²⁾, 조행래²⁾

¹⁾서강정보대학, ²⁾순천대학교

서남부 해안 지역인 순천은 들깨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야채로서의 들깨잎 출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채엽량과 종실수량간에는 관계가 깊어서 채엽정도에 따라서 종실 수량의 변이가 크다. 따라서, 종실수량의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엽면적을 생육후기까지 유지시키면서 채엽에 의한 경제성을 높이고자 서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순천대학교 부속농장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다. 공시재료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분양받은 그림 들깨 품종을 이용하였고 파종기는 5월 20일, 30일, 6월 10일로 하였으며 재식거리는 60×25cm로 직파하였다.

10a당 시비량은 N-P₂O₅-K₂O-퇴비를 4-3-2-1,000kg으로 전량 기비로 사용하였고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 하였으며 기타는 들깨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엽채취는 각 파종기별로 엽채채취구, 엽무채취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엽채취 시기는 1차(7월 5일), 2차(7월 10일), 3차(7월 20일), 4차(8월 5일), 5차(8월 20일), 6차(8월 31일)까지 하여 개화기 이전에 채엽을 완료하여 합계 산출하였다. 경제분석을 위하여는 7월부터 8월까지의 채엽된 들깨잎을 시중 소매가격에 판매 산출하였고, 종실은 11월의 시중 소매가격에 판매 산출하였으며 엽채취 노력은 10a당 채취노동 참여시간으로 환산 산출하였다. 실험결과 개화기 성숙기는 채엽유무에 관계없이 파종기에 따라 변이가 인정되었으며 채엽구는 어느 파종기에서나 경장, 분지수, 이삭수, 천립중 등의 수량구성형질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종실수량 및 유효분함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채엽구의 생엽수량은 5월 20일 파종구가 10a당 1,649kg, 종실수량 169kg으로 높아서 조수익에서 3,013천원, 순수익에서 2,239천원의 소득을 올렸기에 서남부 해안지역인 순천에서의 들깨잎 채취를 위한 파종기는 5월 20일이 적기라고 생각되어진다.